



Fluid Sunshine · 흐르는 햇빛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강하게 하듯이

"J'ai décidé d'être heureuse parce que c'est bon pour la santé." — Voltaire

Fluid Sunny Day · 캔버스에 아크릴릭 · 420 × 160 cm · 2025

빛이 흘러 내리는 정원

Garden of Flowing Light

이선영 (미술평론가)

결혼 후 2013년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한국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온 박유진의 작품은 원색을 넘어 야광이 감도는 화려한 색의 향연이 특징이다. 예쁜 색일수록 아껴 써야 하지만 그러한 금기는 위반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색은 억압의 사슬을 풀고 폭주하지만 혼란은 없다. 작년 8월 귀국한 그는 이번 전시 작품의 반 정도는 한국에서 반은 네덜란드에서 작업했다.

삼십대 중반이 되어 새로이 뿌리내려야 했던 네덜란드의 연중 기후를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받는 인상과 비교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긴 겨울과 잦은 비, 절제된 색감의 풍경은 초기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두운 하늘과 짧은 낮은 화면의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낮선 환경에 적응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붓을 놀렸다. 씨름 선수처럼 상대의 힘을 이용한 전술이다. 삶의 중력이 자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만큼 비상(飛翔)하고자 했다.

작가는 색을 '감정을 회복하는 도구로 인식하게' 되었다. 박유진이 '플루이드 선샤인(Fluid Sunshine)'이라 명명한 개념에는 '비처럼 흐르지만 햇빛의 색을 머금은 빛의 이미지, 노랑과 분홍, 파랑으로 반짝이는 물방울은 우울한 기후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박유진의 작품은 무아지경은 아니며, '건강을 위해 행복해지기로 결정'했던 볼테르의 이성적 거리감을 유지한다. 계몽주의 사상이 볼테르의 교훈은 '빛'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의 작품은 원초적이거나 현대적이며, 그 둘이기도 하다. 원시와 현대는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된다.

「매일 내리는 비를 원망하기보다, 나는 스스로 흐르는 햇빛을 만들어 내기로 했다.」

— 박유진

미나리, 또는 타지에서 뿌리내리는 일

Minari · Taking Root in Foreign Soil

프레드릭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후기자본주의 문화논리]에서 반 고흐의 [농사꾼의 신발]을 매개로 근대미술의 유토피아적 동기를 설득력있게 묘사한 바 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칙칙하고 우울한 주변을 극적으로 변신시켰던 박유진의 미적 태도는 모더니즘적이다.

박유진의 최근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나리는 중간대목을 잘라 나누어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나무와도 같은 수목 모델이 아니라 리즘같은 모델'(둘리즈와 가타리)이다. 미나리의 뿌리는 깊이 않아도 재생산이 되는 것이다.

네덜란드 전시에서의 프로젝트인 [roots between us]에서 그는 방문 관객에게 미나리의 마디를 분양했다. 전시 기간 중 117명이 미나리를 가져갔다. 그것은 박유진이 파독 광부에게 분양받아 키워낸 미나리와 같은 맥락에 있다. 타지에서 뿌리내리려는 타자들 간의 연대가 그것이다.

박유진이 '플루이드 선샤인'이라 명명한 개념에는 어둠을 밝게, 무거움을 유동적으로, 딱딱함을 부드럽게 하려는 지향이 있으며,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강하게 하듯이'라는 이번 전시 부제에 집약돼 있다.

출전: Gallery THE C, Seoul, 2026 ·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강하게 하듯이」 · 이선영 (미술평론가)

약력 · CURRICULUM VITAE

학력 · EDUCATION

2014 MA, HKU Utrecht, Netherlands

2004 MFA, Hongik University, Seoul

2002 BFA, Hongik University, Seoul

2000 Exchange, ENSBA Paris

개인전 · SOLO EXHIBITIONS

2026 As Softness Strengthens the World, Gallery THE C, Seoul

2025 It's a Fluid-Sunny Day, Arti et Amicitiae, Amsterdam

2024 Everything is Singing, Fikri, Amsterdam

2024 Fluid Sunshine, Factor IJ, Amsterdam

2016 Weed Consumption, Cafe Black Bird, Utrecht

2014 Weed Consumption, Gallery the Cup, Seoul

2012 Scion Garden, Gallery Cola, Seoul

2010 Restoring Vitality, Noam Gallery, Seoul

2007 "I Will Protect You", Song-eun Gallery, Seoul

단체전 · SELECTED GROUP

2025 Big Art, Slotervaart, Amsterdam

2024 Connect, Arti et Amicitiae, Amsterdam

2023 Salon, Arti et Amicitiae, Amsterdam

2022 Gravity, Soluna Fine Art, Hong Kong

2021 Sinan Maninbo, Dunjang Gallery, Korea

2018 This Must Be the Pacific Place, Vriend van Bavink, Amsterdam

주요 프로젝트 · SELECTED PROJECTS

2025- Descendant of Minari — 117 plants distributed

2025 Roots Between Us — Big Art Amsterdam

2026 Minari Project Seoul — Gallery THE C

2014-16 Weed Consumption — etchings, Seoul & Utrecht

언론 · PRESS

2026 Lee Sun-young (art critic) — commissioned essay, Gallery THE C

2025 Daljin Art Magazine — critical entry

수상 및 소장 · AWARDS & COLLECTIONS

2013 MMCA Government Art Bank, South Korea

2012 Danwon Art Contest

2011 Hanseong Baekje Art Contest

2007 Arts Council Korea grant

대형 작품 · MONUMENTAL WORKS

420×160 Fluid sunny day · Acrylic · 2025

400×210 Fluid sunshine2 · Acrylic · 2024

400×167 Dungle Dungle · Acrylics · 2026

350×170 Fluid Sun Shower · Acrylic · 2024

270×270 Sweet Home-Sweet Garden · Acrylic · 2023

선정 작품 · 2023-2026



동글게 동글게 / Dungle Dungle

캔버스에 아크릴릭 · 420 x 160 cm · 2026



Portrait of Round Mountain
캔버스에 아크릴릭 · 17 x 25 cm · 2026



Portrait of Round Mountain
캔버스에 아크릴릭 · 17 x 25 cm · 2026



Portrait of Round Mountain
캔버스에 아크릴릭 · 17 x 25 cm · 2026



Portrait of Round Mountain
캔버스에 아크릴릭 · 17 x 25 cm · 2026



Soft Cloud Tree I

캔버스에 아크릴릭 및 오일 · 70 x 50 cm · 2026



Soft Cloud Tree II

캔버스에 아크릴릭 및 오일 · 70 x 50 cm · 2026



Cloud Trees Are Growing

캔버스에 아크릴릭 · 53 x 41 cm · 2026



Soft, Sweet Cloud

캔버스에 아크릴릭 및 오일 · 60 x 50 cm · 2026

선정 작품 · 2023-2025

**Calm Sunset**

캔버스에 아크릴릭 · 60 x 40 cm · 2024

**Solid Hopes**

캔버스에 아크릴릭 · 60 x 40 cm · 2024

**간직한 순간 Momentos Gathering**

캔버스에 아크릴릭 · 70 x 50 cm · 2023

**해독 정원사 Detox Gardener**

캔버스에 아크릴릭 · 70 x 50 cm · 2023



흐르는 햇빛 Fluid Sunshine

캔버스에 아크릴릭 · 130 x 160 cm · 2023



다시 자랄 것이다 Everything Will Grow Here Again

캔버스에 아크릴릭 · 130 x 160 cm · 2025

대형 작품 · 2024

High-resolution masters — added July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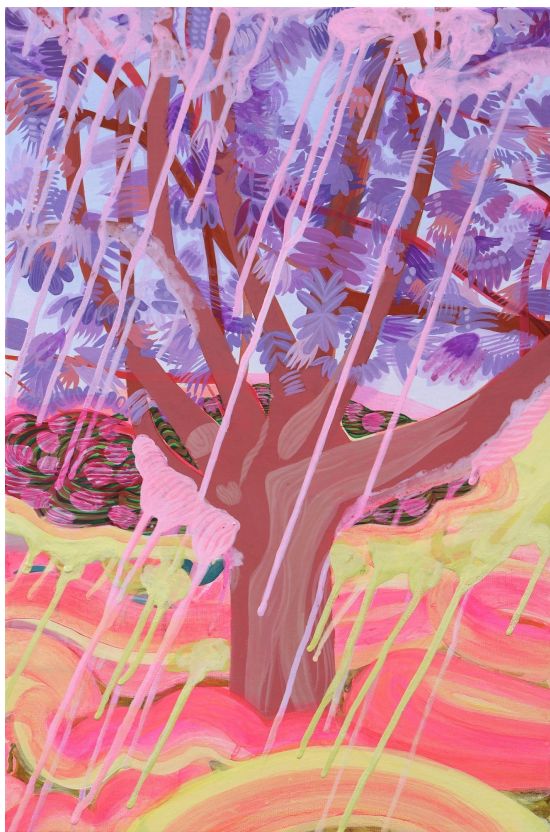
Fluid Sun Shower

캔버스에 아크릴릭 · 350 × 170 cm · 2024



Fluid Sunshine 2

캔버스에 아크릴릭 · 400 × 210 cm · 2024



Singing Momentos 1
캔버스에 아크릴릭 · 40 x 60 cm · 2023



Singing Momentos 2
캔버스에 아크릴릭 · 40 x 60 cm · 2024



Gathering Momentos 2
캔버스에 아크릴릭 · 40 x 60 cm · 2023



Resting Momentos
캔버스에 아크릴릭 · dimensions variable · 2023



간직된 순간 Momentos Gathering
 캔버스에 아크릴릭 · 60 x 40 cm · 2023



봄이 오고 있나요? Is Spring Coming?
 캔버스에 아크릴릭 · 60 x 45 cm · 2023

서로를 찾는 뿌리들

BIG ART 2025, 암스테르담 · @DESCENDANT_OF_MINARI

2025년 암스테르담 빅아트에서 박유진은 살아있는 미나리 — 한국의 물냉이를 개별 마디로 잘라 작은 유리 바이알에 담은 것 — 를 박람회 기간 동안 117명의 관람객에게 나누어주었다. 그 식물의 계보는 수십 년 전 독일로 이주한 파독 광부에게서 박유진에게 전해진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나리는 리좀이다. 나무와 달리 깊은 토대가 필요 없다 —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단 하나의 마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디아스포라 경험의 모델로서, 이는 하나의 깊은 원점이라는 수목적 꿈을 다수의, 수평적, 끈질긴 연결이라는 리좀적 현실로 대체한다.

함께 낙원에 있자.

스튜디오

암스테르담 · 서울

이메일

uzinepark@gmail.com

웹사이트

uzinepark.com

인스타그램

@uzine.park_art · @descendant_of_minari

"J'ai décidé d'être heureuse parce que c'est bon pour la santé."
— Voltaire